

1260년 만에 최초로 석굴암 개별연구 결집되다

“석굴암 불국사의 사상적 기반에는 유가종과 초기 유가밀교종이 있었다.”

국보 제24호이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경주 석굴암(토함산 석굴사)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학술 대회가 열렸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0월 8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토함산 석굴 불상의 최초 종합적 연구’를 개최했다.

석굴암 조형물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 발표가 진행되기는 751년 석굴암을 조성하기 시작한 지 1260년이 흘러 처음이다.

석굴암에는 본존불을 비롯해 10대 제자, 십일면관음보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감실존상, 제석상, 범천상, 사천왕상, 인왕상(금강역사상), 팔부중상 등 38구의 조각상이 배치돼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동국대 명예교수), 김은선 대전선사박물관 학예사, 강삼해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박형국 일본 무사시노(武蔵野)대 교수, 김은화 문화유산기복보존연구소 실장, 미즈노 사야 가나자와(金澤)미술

공예대 교수, 임영애 경주대 교수 등 20여 불교미술 전문가가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토함산 석굴 사상은 유가종

문명대 소장은 ‘토함산 석굴의 유가종 사상과 본존불상’ 논문을 통해 석굴암의 조성 사상과 도상 해석을 연결시켰다.

문명대 소장은 “‘삼국유사’나 2009년 발견된 ‘석가탑 중수기’ 등을 분석한 결과 토함산 석굴은 유가종 또는 유가밀교종에 의해 조성되어 조선 초까지 시종일관 이어졌다”고 설명하며 “특히 유가종 사상인 유가사상을 초기 유가밀교에서 기본사상으로 삼았고 《금강경명》 등을 유가종에서 중시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소장은 “본존불 수인(手印·손의 모양)이 향마촉지인인 데다 십일면관음상이나 지장보살 등 불상의 배치 상황 등으로 미뤄 본존불은 석가모니불”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문명대 소장은 “석굴암 본존은 밀교·화엄적인 비로자나불상, 정토적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관련학자를 비롯한 200여 대중이 모였었다.

또는 화엄적이 아미타불상, 법화적인 석가불상설 등 다양한 설이 공존하는데 석가불과 아미타불상설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또 “석굴 불상의 도상은 《다라니집경》에 따라 유기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함으로써 호국불교, 불국토 수호의 정신을 훌륭하게 구현한 위대한 불상”이라고 평가했다.

문 소장은 “석굴암은 차이나(탄

일 예배굴) 석굴과 38구의 불상군이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세계 유일의 예”라며 “석굴암 불상군의 전체와 개별상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통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굴암 9세기 증축 가능성 있다.

일본 금세기미술공예대학 미즈노 교수는 ‘팔부중상’ 논문 발표를 통해 팔부중상 조각을 구례 화엄사 서 5

층석탑, 영양 화전동 3층석탑 등 9세기 후반 석탑의 팔부중상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미즈노 교수는 “현재의 전실은 석굴암 창건 당사가 아니라 9세기 후반 이후부터 10세기 전반 사이에 증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굴암 앞쪽에는 전실(前室)이 있고 전실 좌우 벽에는 팔부중상(불법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

을 수호하는 상)이 조성돼 있다.

미즈노 교수는 “석굴암전실의 팔부중상은 팔부중 보다는 팔부신장으로 칭해야 할 근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팔부중부터 팔부신장으로 변화가 생기는 시기가 9세기 후반경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전실은 창건 초가 아닌 후에 증축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즈노 교수는 “석굴암전

실 상의 상립 연대의 상한과 하한을 추측해보면 신라 경문왕대(861~875)보다는 내려가지만 팔부중 특징을 일부 남기는 팔부신상이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10세기 전반 이후로 까지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토함산 석굴의 유가종 사상과 본존불상’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이강근 경주대 교수의 ‘인도 중국 차이나 석굴과 토함산 석굴’, 김은선 대전선사박물관 학예사의 ‘10대 제자상’, 강삼해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의 ‘11면 관음보살상’, 주수완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 박형국 일본 무장아미미술대학 교수의 ‘감실존상’, 김은화 문화유산기복보존연구소 실장의 ‘제석·범천상’, 임영애 경주대 교수의 ‘사천왕상’, 유근자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금강역사상’, 미즈노 사야 일본 금세기미술공예대학 교수의 ‘팔부중상’ 등 총 10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기록문화 학술행사로 제전 막 열다

오대산불교문화축전 개막

제8회 오대산불교문화축전과 월경사 성보박물관 개관 12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조선왕조실록·왕실의례 기록문화와 디자인’ 학술세미나가 10월 13일 월경사 대법전에서 열렸다.

월경사와 평창군이 주최하고 강원일보사와 성보박물관이 주관한 이날 학술세미나는 주지 정법 스님, 부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단기출가학교 행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정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대산은 민족의 성산으로 불교문화 최고의 성지로서 풍부한 기록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러한 자부심 속에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풍부한 문화가 잘 전승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불전에 나타난 일반 숫자와 그 의미’를 주제로 한 고승관 흥익대 명예교수의 특별강연과 함께 시작된 이날 세미나는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실장의 사회로 4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각 주제별 토론자와 발제자들은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례 등 세계적인 수준의 오대산 기록문화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오대산 불교문화의 대중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또 오대산이 보유한 세계적인 기록문화를 이미지화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제8회 오대산불교문화축전은 ‘생명·명상·치유의 한마당’을 주제로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까지 3일간 월경사 등 오대산 일원에서 개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진각종 회당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진각종이 새 청사인 진각문화전승원의 개관을 앞두고 신교도들의 화합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진각종 회당학회는 10월 27~28일 서울 하월곡동 종인내 내 탑주심인당에서 ‘밀교문화와 현대사회’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회당학회장 지정정사가 기조연설에 나서고 한금

과 중국 심서성불교협회 부회장, 나례쉬만 네팔 트리부반대 교수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당학회는 앞서 2002년 종조 회당대중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밀교 의식을 시연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중앙승가대 대학원, 불교학술대회 개최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보각 스님)은 10월 19일 오전 9시45분 중앙승가대 본관 4층 대강당에서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가와 종교’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불교학술대회는 △초기불전에 나타난 불교와 국가의 관계(조준호/ 고려대)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국가와 종교(신규탁/ 연세대) △한국 역사에 나타난 국가와

종교(윤세원/ 인천대) △현대 한국 사회와 불교(유승무/ 중앙승가대) △서구역사에 나타난 종교와 정치 관계(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등 논문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정준영(서울불교대학원대), 류성민(한신대), 김용태(동국대), 이병욱(고려대), 유재동(서강대) 박사 등이 참여한다.

노덕현 기자

고양 길상사 ‘법화경’ 문화재 지정 징광사 목판본 ‘육경합부’도 함께

고양 길상사(주지 정각)가 소장하고 있는 <육경합부>와 <묘법연화경>이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10월 5일 <육경합부>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59호, <묘법연화경> 전 7권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60호로 지정·고시했다.

<육경합부>는 금강경을 비롯해 화엄경 능엄진주 아미타경 관세음보살에묘 묘법연화경 등 6개의 경전을 각각 새겨 합본한 것으로 조선조 후기까지 25종 이상의 판본이 현존하고 있다.

길상사 소장 <육경합부>는 조선 성종 22년(1491)에 판각된 징광사 목판본으로 현재까지 다른 곳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유일본이다.

<육경합부>는 불교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구인사 소장 <육경합부>

와 상원사문수동자상 복장에서 나온 영제암판본 육경합부, 불갑사 복장에서 나온 육경합부 등 11종이 일괄적으로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학계에서는 길상사 소장의 <육경합부> 역시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묘법연화경>은 조선 명종16년(1561)년에 판각되어 간행된 목판본으로 현재 전 7권7책이 완질본으로 남아 있는 매우 희귀한 자료다. 완질본의 가치로 인해 이 역시 보물 지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길상사 주지 보산 스님은 “이번에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길상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찰음식박물관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불교전문 교육기관도 추진해 경기북부 지역 역사문화 포교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참선자, 수행자, 수험생, 학업자

신묘장구대다라니 (산스크리트어)

성표등록 40-2011-0049176 / 디자인등록 30-2011-0038559

소원 성취의 옷

침향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에서 향균효과가 가장 뛰어나 공기정화에 탁월합니다.

사람의 체온에 해당하는 36도 이상의 열을 받을 때부터 그 기운을 발하기 시작하며 위를 따뜻하게 하고 몸 속에 나쁜 기를 내려주고 기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사기(邪氣)를 몰아내어 머리를 맑게 해주어 한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부처님의 향으로 최고의 수행과 참선을 할 수 있는 중생제도로 탁월한 하늘이 내려준 천연향이며 향기를 내는 신비한 물질입니다.

삼각법(삼각기법)을 통하여 참선과 수행자의 중심이 되어 기가 가장 많이 모여지며 심신이 안정되어 소구하는 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산스크리트어)는 일체의 소망을 성취케하고 복을 받게 하며 무적이며 일체 중생이 윤회하는 삼유(三有)의 길을 청정케 하는 것이다.

색중에서 적색(빨강)과 흑색을 교합하여 흑색은 깨우침, 팔정도(정견, 정어, 정법, 정업, 정명, 정사유, 정정진, 정정)의 의미로 적색은 항상 쉬지 않고 수행하라는 정진을 상징합니다. 글자 하나 하나마다 금박과 침향이 무한한 기운으로 변하여 부처님의 자비로 일체 중생을 성취케하는 깨달음의 옷입니다.

모든 보시금은 대불전에 쓰여집니다.

불자라면 가족 모두가 깨달음의 옷으로 소원성취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우 능 시 0311898-5698 / 010-2589-7280

대학입시 수능시험학력 발전 *보시금 : 95,000원
우체국 104604-01-005265 [예금주: 우능사] / 부처님 전에 축원하여 발송합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이 쉰다는 원인은 비타민과 미네랄, 수어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성 등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면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져나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네이버,다음 에서 ‘초록원월빙’을 검색하세요.